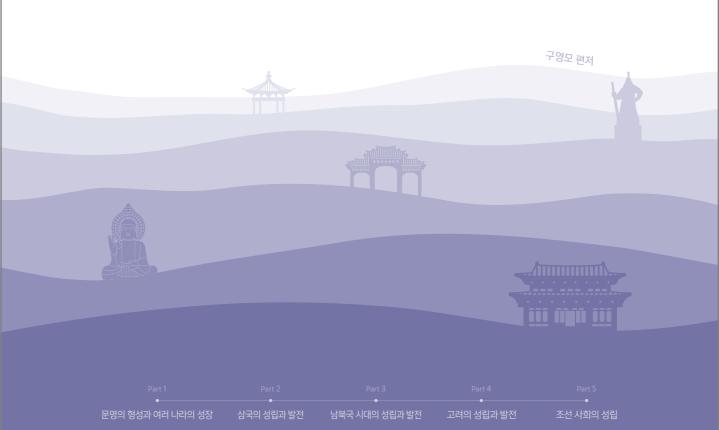


# 한 국 사



### 머리말

지난 몇 년 동안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서답형 시험 체제에 맞춰서 각종 개념과 내용들을 실제 답안의 분량인 1줄로써 정리해서 펴냈기 때문이다. 그러한 덕분에 김구전 공역사 수강생 중에서만 공립 1차 합격에 170명, 181명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수험서를 개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여러 책들을 지속적으로 펴냈고, 주요 개론 서에 잘 서술되지 않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서술들을 좀 더 잘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 고대사 부분의 서술을 보다 더 다듬고 싶었다. 그리고 근래 임용 역사 시험의 경향이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발맞추어 서술을 세분화하고 싶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시험 경향에 맞춰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주요 역사적 인물·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서답형 시험 체제에 철저히 맞추어 정리하였다. 답이 단어나 문구로 이루어진 기입형 문항, 1줄 내외의 완성된 문장 형태로 답을 쓰는 서술형 문항에 맞추어 모든 내용들을 1줄 내외로 정리한 것이다.

둘째, 모든 내용들을 현행 교육과정의 관점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문벌귀족'이란 용어 대신 '문벌'을 사용하는 등 최신의 학문적 성과를 많이 담고 있다. 최근 나온 한국역 사연구회의 저서 내용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편에 발맞추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서적들의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각 단원 앞에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핵심 요소를 넣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역사 주제들을 다시금 되짚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내용들 또한 모두 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중등 임용 전공역사 시험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근래 역사임용 시험에서는 문항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발맞추어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 항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과 내용, 결과, 영향, 의의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모두 정리하여 교재에 담았다 다섯째, 방대한 한국사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각화된 이미지를 보다 더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연표를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상사와 제도사. 경제사 등의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도표와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기출 사료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사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담았다. 다양한 사료 원전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래 변별력이 강해지고 있 는 한문 사료 문항 등에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곱째, 임용 역사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무원 시험 등 국가기관에서 출제되는 한국사 관련 시험의 출제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넣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출제 가능성에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경기도 중등임용 역사과 시험장 앞에 서서 수험생분들께 인사를 드리다 보면, 삼삼오오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월드컵 경기 시청 등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교재 개정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연구실 직원분들과 함께 더욱 좋아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준 박문각 출판 여러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작업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히 기다려주시면서, 필요한 지도, 도표 등의 부속물 작업에 임해주셨기 때문이다. 저의 부족한 작업물이 많은 사랑을 받는 데에는 출판사 임직원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일 것이다. 출판부분들 늘 고맙습니다!

노량진 연구실에서

子で見る書

## 차 례

		04 삼국의 문화		
PART <b>01</b>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	<b>나</b> 의 성장	1 삼국의 신앙과 문화의 성격 96		
		2 불교의 수용과 발전 3 유학과 도교의 수용	···100 ···103	
이 문명의 형성 과정		3 뉴릭과 <del>포교의 구등</del> 4 삼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파	105	
1 선사 시대의 전개	··· 10	4 644 406 644 64	100	
2 역사 시대의 전개	··· 15			
0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PART <b>03</b> 남북국 시대의 성립	 과 박정	
1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18		7 2 2	
2 고조선 관련 기록과 계승 의식	··· 24	01 통일신라의 성립과 발전		
03 여러 나라의 성장과 발전		1 신라 중대의 특징과 발전	110	
1 부여	26	2 통일신라의 통치 제도	115	
2 고구려	30	3 신라 하대의 통치 질서 동요	118	
3 옥저	33			
4 동예	34	02 통일신라의 사회·경제		
5 삼한	··· 36	1 통일신라의 사회	122	
		2 통일신라의 경제	···124	
		3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	···126	
PART <b>02</b> 삼국의 성립과 발전		03 통일신라의 문화		
		1 유교와 역사서의 편찬	···128	
01 고대 국가의 성립		2 불교 종파의 성립과 발전	130	
1 고대 국가의 정비 과정	42	3 다양한 예술과 문화의 발전	···134	
02 삼국의 정치		04 발해의 정치		
1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44	1 발해의 건국과 흥망	135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60	2 발해의 통치 제도	···139	
3 신라의 성립과 발전	··· 71	05 11-1101 11-1 -1-11		
4 가야의 성립과 발전	82	05 발해의 사회·경제		
5 삼국의 통치 제도와 신분제	84	1 발해의 사회	…142	
6 삼국 통일 전쟁	89	2 발해의 경제	143	
03 삼국의 사회·경제		06 발해의 문화		
1 삼국의 사회	95	1 발해의 문화 예술	144	
2 삼국의 경제	96	2 발해의 계승 의식	···147	
= .				

PART <b>04</b> 고려의 성립과 발전		PART <b>05</b> 조선 사회의 성립	
이 고려의 정치		0] 조선 전기의 정치	
1 고려 왕조의 성격과 시기 구분 2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통일 3 고려의 중앙집권체제 확립 4 문벌 사회의 동요 5 원의 간섭과 개혁 정치 시도	152 154 156 162 169	<ul><li>1 조선 사회의 성격과 시대 구분</li><li>2 조선의 건국 과정</li><li>3 왕권 강회와 제도 정비</li><li>4 사화의 발생과 붕당 정치의 성립</li></ul>	···232 ···234 ···236 ···243
		02 조선 전기의 통치 제도와 대외 관계	
02 고려의 통치 제도와 대외 관계1 중앙 제도2 교육 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3 지방 제도4 군사 조직5 대외 관계	···176 ···180 ···182 ···185 ···186	1 법전의 편찬 2 중앙 행정 제도 3 관리 등용 제도 4 교육 기관 5 지방 제도 6 군사 제도 7 대외 관계	···248 ···251 ···256 ···259 ···261 ···263 ···266
03 고려의 경제			
1 토지 제도 2 수취 제도 3 경제 활동 4 대외 교류	···194 ···199 ···201 ···205	03 조선 전기의 경제 1 토지 제도 2 수취체제의 확립 3 경제 정책과 경제의 발전	273 275 278
04 고려의 사회		04 조선 전기의 사회	
1 신분 제도 2 생활 모습과 사회 정책 3 신분 질서의 동요	···207 ···211 ···213	1 신분제 2 서원과 향약의 보급 3 사회 보장 제도	281 285 287
05 고려의 문화		05 조선 전기의 문화	
1 불교의 발전 2 대장경의 조판 3 유학의 발전 4 역사서의 편찬 5 여러 문화의 발달	···215 ···220 ···221 ···223 ···226	1 성리학의 발달 2 각종 서적의 편찬 3 과학 기술의 발전과 훈민정음의 창제 4 종교·문학·예술의 발전	···288 ···292 ···297 ···302

## 차 례

PART <b>06</b> 조선 사회의 변동		PART <b>07</b>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이 조선 후기의 정치		0]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1 양난의 발생과 수습	306	1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	382	
2 통치 체제의 개편	313	2 통상 개화론의 대두와 개항	386	
3 탕평 정치의 전개	316	3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391	
4 세도 정치의 전개	322	4 갑신정변과 국제 정세의 변화	395	
5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324	5 동학농민운동	401	
02 조선 후기의 경제		6 갑오·을미개혁과 아관파천	406	
1 수취 체제의 정비	327	02 대한제국의 수립과 국권 침탈		
2 삼정의 문란	331	1 독립협회의 활동	413	
3 농업의 발달과 변화	334	2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의 추진	418	
4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337	3 일제의 침략과 국권 침탈	423	
03 조선 후기의 사회		4 항일의병운동의 전개	···426 ···430	
1 신분제의 동요	347	5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6 독도와 간도	434	
2 향촌 질서와 가족 제도의 변화	351	0 국도와 신도	434	
3 새로운 종교의 대두와 영향	353	03 근대 사회의 사회·경제		
4 농민 봉기의 전개	356			
		1 개항 이후 사회·경제의 변화	437	
04 조선 후기의 문화		2 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저항	442	
1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359	3 일본의 식민지 경제 재편 작업과 저형	;···444	
2 양명학의 수용과 발전	362	0/ 7511 115101 1751		
3 실학의 발달	363	04 근대 사회의 문화		
4 국학 연구의 확대	367	1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448	
5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374	2 근대 교육과 국학 <del>운동</del>	451	
6 과학 기술의 발달	377	3 종교와 문예의 새 경향	454	

PART <b>08</b> 일제 강점기		PART <b>09</b> 대한민국의 발전	
01 일제의 지배 정책과 그 성격		0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식민지 근대의 성격	460	1 해방과 신국가 건설 운동	548
2 일제의 통치 체제	462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565
3 1910년대 무단 통치	465		
4 1920년대 문화 통치	468	0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5 1930-40년대 민족 말살정책	470		
		1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4·19 혁명	571
02 민족운동의 전개		2 박정희 정부와 유신체제	581
	470	3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589
1 1910년대 독립운동	476	4 민주주의의 발전	596
2 3·1 운동의 전개	481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483	03 경제 성장과 사회의 발전	
4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5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491 ···504	1 1940-50년대 경제 성장과 사회 모습	598
5 1920년대 국외 독립군동 6 1930-40년대 독립운동	513	2 1960-70년대 경제 성장과 사회 모습	602
0 1930~40인대 독립군공	513	3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 모습	606
		2 1900년대 이후 경제 영영과 시외 포함	000
03 일제 강점기의 사회·경제			
1 1910년대 사회·경제	521	04 문화의 발전	
2 1920년대 사회·경제	525	1 일상생활과 언론의 변화	607
3 1930-40년대 사회·경제	531	2 역사학의 발전	610
04 일제 강점기의 문화		05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1 역사학과 국학의 연구	534		
2 한글과 문예, 종교의 새로운 동향	538	1 김일성 독재체제와 3대 세습	611
3 생활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출현	543	2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614
- 32 12 11 102 1122			

Part

 $\mathbf{0}$ 

##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01 문명의 형성 과정

0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03 여러 나라의 성장과 발전

#### 단원 열기

#### 1. 중학교 『역사』

- (1) 핵심 요소
- 선사 문화와 고조선: 구석기·신석기 문화, 고조선의 건국과 변화
-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 문화의 발전, 여러 나라의 정치와 사회
- (2) 성취 기준
  -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선사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파악한다.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설명한다.

#### 2. 고등학교 『한국사』

- (1) 핵심 요소
-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제가회의
- (2) 성취 기준
  - 고대 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체제의 성격을 이해한다.
  -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정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한다.



PART

## 01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 01 문명의 형성 과정

기출 문학	하			
연번	연도	대주제	문항 내용	배점
01	2010	신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 특징	2.5
02	2010	철기 문화의 발전	청동기 • 철기 시대 유적	2

#### 1 선사 시대의 전개



#### (1) 시대 구분

- ① 선사 시대(先史時代, prehistory)
  - 정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시대
  - © 톰센(C. J. Thomsen): 최초로 고고학 시대를 구분(도구 기준) → 석기, 청동기, 철기
  - © 러벅(J. Lubbok): 석기 시대를 다시 둘로 구분 → 구석기(뗀석기), 신석기(간석기)
- ② 역사 시대(歷史時代, history)
  - 정의: 문자(文字) 등으로 쓰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대
  - © 고고학 발달: 구비(口碑)·회화·유물 등의 포함, 시대 구분의 의미 논란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분
  - 정의: 고대·중세·근대 등의 구분(근세 추가), 왕조별 구분, 왕조 내 구분
  - 장점: 보편성·특수성의 관점에서 파악 가능

## **알아두기** 한국사의 시대 구분 예시

한국사의 시대 구분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발전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본다. 하나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사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로, 국가의 본격적인 출현, 정 복전쟁의 지속, 폐쇄적인 신분제도의 구축 등이 특징이다. 또한 유교와 불교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치 체제 가 정비되어 갔다. 중세사는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왕족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능력 있는 관료가 새로이 충원되는 개방적인 사회로 재편성되었다. 또한 유교와 불교가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중 국 문화의 수용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근세사는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로, 성 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정치를 주장하는 사림집단이 주도하였으며, 농업과 장시의 발달, 화폐경제의 유통으로 전 국적인 유통경제가 발달하였다.

#### (2) 구석기 시대

- ① 성립
  - 시기: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인류 거주 시작(뗀석기 사용)
  - © 자연 환경: 빙하기·간빙기 교차. 한반도·중국 대륙·일본 열도 연결
- ② 구분
  - 전기(약 70만 년 전): 1도구 多기능(谜 주먹도끼・찍개 등)
  - ⑤ 중기(약 10만 년 전): 1도구 1기능(☞ 긁개・밀개・찌르개 등)
  - © 후기(약 4만 년 전): 기능 세분화(MI 슴베찌르개·돌날 등), 주변 지역과 교류(흑요석) → 중석기 이행
- ③ 경제: 수렵ㆍ채집 의존, 언어ㆍ불(화덕)의 사용, 뼈바늘을 이용한 가죽 의복 제작
- (4) 사회
  - 평등 사회: 공동체 사회생활(무리 형성)
  - © 이동 생활: 극심한 환경 변화 적응, 화덕 설치, 동굴·바위그늘 거주 → 막집 생활
- ⑤ 예술 활동
  - □ 목적: 다산・풍요・사냥의 성공 기원
  - © 유물: 동굴 벽화. 고래·물고기·사람 얼굴 등을 각인(주술적 의미)
- ⑥ 유적지
  - ① 상원 검은모루 동굴: 전기 구석기 유적(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 동굴 주거
  -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발굴(Movius 이론 반박)
  - ◎ 웅기 굴포리: 매머드 뼈 화석 발견

- 공주 석장리: 1964년 발굴 이래 다양한 유물 발굴(에 외날 찍개, 양날 찍개, 주먹 도끼, 긁개 등), 후기 평지 집터(에 기둥, 화덕자리), 예술활동(에 고래·멧돼지 등을 조각)
- □ 단양 수양개: 중기・후기 구석기 문화 발달. 흑요석 석기 발견
- ① 구석기 인골의 발견
  - □ 역포아이: 평양 역포구역 대현동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
  - © 승리산인: 평남 덕천군 승리산 동굴에 서 발견
  - © 흥수아이: 충북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발견



♣ 구석기 · 신석기 시대 유적 분포

## **☞ 알아두기** 모비우스(Movius)의 이론을 반박한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하버드대학의 모비우스 교수는 전기 구석기 문화를 인도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서쪽 일대(인도ㆍ중동ㆍ아프리카ㆍ유럽)는 주먹도끼 문화권(아슐리안형 주먹도끼)으로, 동쪽 일대(동남아시아ㆍ동북아시아)는 찍개 문화권(외날찍개ㆍ쌍날찍개 등)으로 구분하여 서쪽 일대의 전기 구석기 문화가 보다 우수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1978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 전기 구석기 문화를 찍개 문화와 주먹도끼 문화로 구분한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는 최초의 증거가 되었다.



#### (3) 신석기 시대

- ① 배경: 약 1만 년 전 빙하기 종결, 기온 상승 → 해수면 상승, 자연환경의 변화(동식물)
- ② 주요 변화상 78 2010
  - 토기의 사용
    - @ 기능: 식량의 저장 및 음식 조리 등의 용도
    - ⑤ 발전: 이른 민무늬 토기·덧무늬 토기 → 빗살무늬 토기
  - 생산 경제
    - ⓐ 시기: 기원전 4000년 무렵 한반도 내 초기 농경 시작(확산)
    - ⓑ 내용: 조·기장·피·수수 등의 농경 확산, 목축 시작

- ⓒ 영향: 정착 생활. 도구의 발달. 토기·저장 구덩이. 수렵·채집 병존
- ◎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 G, Childe)는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을 혁명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 촌락을 이루게 되었고, 사회의 규모도 커졌으며 토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 정착 생활

- @ 움집 거주: 해안·강가 등에 위치, 화덕(중앙)·구덩이(주변) 설치
- ⑤ 부족 사회: 씨족 형성(혈연 바탕) → 족외혼을 통해 부족 형성
- ⓒ 평등 사회: 계급 미발생, 경험 많은 연장자가 지도자 역할

#### ② 도구의 발전

- @ 간석기: 돌도끼·돌화살촉·돌보습·돌괭이·갈돌·갈판·그물추 사용
- ⓑ 원시 수공업: 가락바퀴·뼈바늘·낚시도구 등의 제작·사용
- © 교류 발달: 털가죽·장신구 등의 장거리 교류









▲ 신석기 시대 유물



▲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 양양 오산리 집터 유적



#### (6) 사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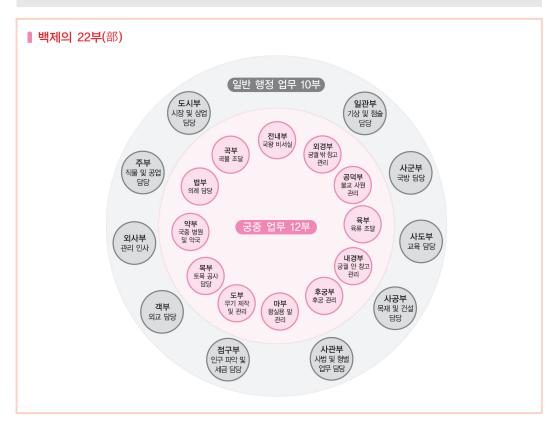
- ① 성왕(聖王, 523-554)
  - 사비 천도
    - @ 목적: 산지 사이의 좁은 지역 탈피, 평야지대(생산력) · 금강(수로교통) 이점 활용
    - ⓑ 정비: 국호 개칭(남부여), 사비도성 성역화(백제 중심 천하관 구축)
  - 통치체제 정비
    - @ 22部 설치: 내관 12부·외관 10부의 22부 체제 확립
    - ⑤ 5部 편제: 사비 천도 후 수도에 거주하는 지배 세력에 대한 통제
    - ⓒ 방(方)-군(郡)-성(城) 체제 확립
      - 편제: 전국을 5방으로 구분, 방 아래 6-10개의 군 설치, 군 아래 성 설치
      - 파견: 方城(방의 중심지)에 方領. 군마다 郡將. 城마다 성주・도사 파견
  - □ 대외관계
    - ② 양(梁): '수동장군 백제왕' 책봉, 모시박사·공장·화사(畵師) 수용, 육후 초빙
    - b 영향력 확대: 가야·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도모
  - ② 불교의 발달
    - ② 계율(戒律): 겸익(謙益)이 인도에 다녀온 후 계율 연구(장려)
    - ⓑ 교류: 양으로부터 『열반경』 수용(연구), 일본에 노리사치계를 파견해 불교 전래
  - □ 한강 유역을 둘러싼 전투 <sup>165</sup> <sup>2021</sup>
    - ⑧ 배경: 고구려의 왕위 계승에 따른 내분 지속 → 나・제 동맹군의 공격
    - ⓑ 배신: 백제·가야의 하류 6군 차지, 신라의 상류 10군 확보 → But 신라의 배신
    - ⓒ 대응: 약속했던 혼인 체결(성왕의 딸이 시집) 및 영토 반환 요구
    - ⑥ 공격: 일본·대가야 등과 연합하여 신라 공격 →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

#### 사료탐구 관산성 전투의 모습

16년 봄, 도읍을 사비(泗沘)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고 하였다. …

19년, 임금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표문을 올려 모시박사(毛詩博士)와 『열반경(涅槃 經)』 등의 경전과 해설서 및 공장(工匠)과 화사(畫師) 등을 청하였더니. 양나라에서 이를 들어주었다. 31년 가을 7월,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겨울 10월, 임금의 딸이 신라로 시집갔다.

32년 가을 7월, 임금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 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혼전 중에 임금이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 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 ② 위덕왕(威德王, 554-598)

- 수습: 대성(大姓) 8족의 정국 주도, 북주・북제・수(隋)・진(陳) 등에 조공
- ◎ 사찰 건립: 부여 능산리 사찰(백제 금동대향로·창왕명 석조사리감 출토), 왕흥사

#### **│ 사료탐구** ) 위덕왕 시기 외교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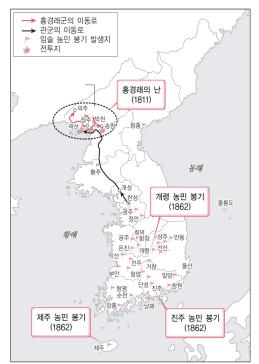
45년 가을 9월, 임금이 장사(長史) 왕변나(王辯那)를 시켜 수나라에 가서 조공하게 하였다. 임금은 수 나라가 요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바치고, 군대의 길잡이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지난날에 고구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에 장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하게 했으나, 고구려의 왕과 신하들이 겁을 내며 죄를 청하기에 짐이 이미 용서하였으니 그들을 칠 수는 없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위덕왕

#### (4) 임술 농민 봉기(1862, 철종 13년)

- ① 배경 7출 2002
  - 삼정의 문란 심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 성 확대(도결·포흠 등)
  - © 조세 부담 불균형: 조세 부담이 빈농이나 소작농에게 집중

#### ② 발발

- ① 진주 농민 봉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백 낙신의 수탈에 맞서 몰락 양반 유계춘의 봉기
- © 확산: 봉기주도자 등을 처벌하는 정부의 아이하 대처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
- ③ 정부의 대응 7분 2004·2023
  - ① 삼정이정청 설치: 봉기의 확산에 대해 정 부가 삼정 문란 해결 표방하며 설치
  - © 응지삼정소: 중앙·지방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혁안 제시 요구하여 접수



▲ 임술 농민 봉기

#### ④ 결과

- ① 개선책 폐기: 봉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삼정 운영 개선책 마련 포기, 동포제(洞布制) 추인
- 농민의 사회의식 성장: 점차 양반 중심 통치 체제 붕괴
- ⑤ 한계: 군현 단위 고립된 항쟁에 불과, 봉건적 제도 부정 단계 도달 실패

#### 사료탐구) 임술 농민 봉기의 시작

임술년 2월 19일 진주사람 수만 명이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백낙신)가 해산시키고자 하여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위에서 그를 빙 둘러싸고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눈앞에서 여러 번 문책하였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고 분을 풀고자 병영으로 병사를 잡아 들어 가서는 이방 김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곤장으로 수십 대 힘껏 내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다. … 백성들은 이어 무리를 나누어 촌으로 나가 마동의 영장 정남성, 성부인, 최강 최진사 세 집을 모두 불태워 부수었다. 듣건대 이 세 사람은 경영이 긴요치 않은 원우(院宇)에 백성을 절제 없이 부렸다고 한다.

#### 04 조선 후기의 문화

기출 문	항			
연번	연도	대주제	문항 내용	배점
01	2016	예송	갑인예송의 영향	4
02	2000		농업 중심 개혁론	8
03	1999	실학	상업 중심 개혁론	6
04	2012		실학자들의 사상	2
05	2005		실학자들의 사상	3
06	2014	미계하이 버쉬	홍대용의 사상	2
07	2008	세계관의 변화	한백겸의 사상	3
08	2010	7#7L MILII	안정복의 『동사강목』	2
09	2017	국학과 역사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4

#### 1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 (1) 예학(禮學)의 발달

- ① 전기: 『주례』와 왕실의 예인 오례 강조 → 성종 때 『국조오례의』 편찬
- ② 중기: 사림의 등장 → 성리학 이해 및 예학 연구의 심화로 전례 논쟁 발생
- ③ 양란 이후
  - 성격: 예적(禮的) 질서의 회복 강조, 예교 · 예치 중시로 예학 더욱 발달
  - 禮書 발달: 김장생의『가례집람』, 정구(鄭逑)의『오선생예설분류』등의 저술



#### ④ 예송 논쟁 7출 2003·2016

- 배경: 자의대비의 복제를 놓고 인조의 차자로서 종통을 이은 효종의 지위 해석 문제
- 서인: 천하동례(天下同禮), 사대부 중심 정치, 신권 정치 지향
- ⓒ 남인: 왕사부동례(王士不同禮), 군주 전제권 인정, 왕권 중심 정치 지향

- ② 기해예송(己亥禮訟. 1659-1660)
  - @ 발단: 효종의 사망 직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 발생
  - ⓑ 배경: 『국조오례의』에서 논의 못한 복제 문제가 성리학과 예학의 발달에 따라 검토
  - ⓒ 과정
    - 대립: 기년설(서인) vs. 삼년설(남인) 대립 → 기년설 채택
    - 재론 요청: 허목(許穆)이『의례』주소(註疏)를 근거로 복제 개정 주장
    - 반론: 송시열 등이 『의례』 주소의 四種說 중 '體而不正'을 근거로 기년복 주장
    - 봉합: 영의정 정태화가 『대명률』과 『경국대전』 규정에 따라 미봉
    - 윤선도 : 충역론 차원 비화 시도(실패)
  - @ 결과: 서인들은 예송에 가담한 남인들을 대거 조정에서 축출

#### ▋**사료탐구** ) 기해예송(己亥禮訟)의 대립

좌참찬 송준길이 상소하기를, "… 대신들 뜻이 모두 국조 전례에 자식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 제도는 없고 고례(古禮)로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후일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니 차라리 국조 전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도 다른 소견 없이 드디어 기년제로 정했던 것입니다. … 주소(註疏)에 이미 '둘째 적자(嫡子) 이하는 통틀어 서자(庶子)라고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았고, 그 이래에 '체(體)는 체이나 정(正)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서자로서 뒤를 이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목은 그 '서자'를 꼭 첩의 자식으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 □ 갑인예송(甲寅禮訟, 1674-1675) 2016
  - @ 발단: 효종 비의 사망 직후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 발생
  - ⑤ 배경: 『경국대전』에 장자부(長子婦)와 중자부(衆子婦) 구별로 미봉 불가
  - ⓒ 과정: 서인 측 주장에 따라 대공복(9개월) 채택
    - → 남인의 상소로 효종의 지위 논의. 기년복(1년)으로 복제 변경
  - ⑥ 결과: 예송에서 현종의 견해 관철 통해 정국 주도권 장악 → 숙종의 왕권 강화 배경
- □ 의의: 주자학 정치론의 분화(정치적 대립과 학연이 결합되어 발생)
  - ◎ 예송 논쟁은 성리학과 예학의 심화, 친가・장자 중심의 가족 제도로 변화, 학파・붕당 사이의 긴밀성, 신권(臣權)의 성장, 양란 이후 국가 재건의 방법 등이 결합되어 왕실의 전례 문제를 매개로 표출된 것이다.

#### 사료탐구 갑인예송(甲寅禮訟)의 대립

영의정 김수흥 등이 아뢰기를, "…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의 주소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嫡妻)한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우는데 역시 장자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범연하게 보면 적처한테서 난 아들로서 승중한 자이면 통틀어 장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밑에 또 말하기를, '장자라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없는 것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세 번째가 '정체(正體)가 아닌 것이니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자에 대해 풀이하기를 '서(庶)라는 것은 동떨어지게 분별한 것이다. 대개 서자는 첩에게서 난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다. 적처한테서 난 둘째는 중자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서자라고 불렀다. 장자와 동떨어지게 구분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난 자식과 같이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한쪽은 장자로 보아 삼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서자로 보아 삼년 복을 입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네 종류의 설에 '첫째는 정체(正體)이나 대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니 적자가 몹쓸 병이 들어 종묘를 맡을 수 없는 경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궁구해 보면 위에서 이른바 '둘째 아들이 후사가 되어도 장자라고 부른다.'라고 한 것은 적자에게 몹쓸 병이 있어서 둘째 아들로 후사를 세운 경우인 듯합니다. 몹쓸 병이 든 적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서 후사가 되어 장자라고 불리운 자에게 삼년복을 입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적부(嫡婦) 조항의 주소에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장차 적자에게 대를 물려 줄 수 없게 되었거나 장차 대를 물려 줄 자가 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복을 모두 서자나서부(庶婦)처럼 입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러 조목에 논한 것을 가지고 반복 참작해 보면 이번 상복 제도를 국가 전례의 대공복으로 사용한 것은 『예경』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에 상이 답하기를, "…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데 이제 와서는 감히 '정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오늘날 예법을 단정지으려 한단 말인가. …" — 『현종실록(顯宗實錄》 15년 7월 15일

#### (2) 성리학의 절대화

① 배경: 사회·경제적 변화 현상에 대해 정통·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심화

#### ② 과정

- 인조반정 이후: 순정 주자학을 추구하는 이황·이이 문인들이 학계와 정계 장악
- © 호란 이후: 척화 명분 더욱 강화 → 조선중화론, 북벌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작용
- © 송시열: 성리학 집대성(『주자대전차의)』. 윤휴를 사문난적이라고 비난

#### ③ 절대화 탈피 시도

- 17세기 후반: 순정 주자학에서 벗어나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사회모순 극복방안 탐구
- 유휴: 유교 경전 독자적 해석 시도
- © 박세당: 실천 강조하는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반주자학적 유학 사상 전개 → 실학사상 체계화에 이바지
- ◎ 소론: 성혼의 사상 계승, 양명학과 노장사상 수용하여 성리학의 융통성 있는 이해 추구

#### ▮ 호론과 낙론의 비교

구분	<b>호론</b> (한원진)	낙론(이간)
내용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특징	기(氣)의 차별성 강조	이(理)의 보편성 강조
주장	충청 노론	서울 노론

#### ④ 호락논쟁(湖洛論爭)

- 배경: 송시열 사후 그의 수제자 권상하의 문인 이간과 한원진 사이에서 학술 논쟁 발생
- ⑤ 관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갖추어진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의 동이(同異) 여부
- © 낙론: 이간 주장(주로 서울 지역 학자 지지), 인물성동론 주장(이통 강조)
- ② 호론: 한원진 주장(주로 충청도 지역 학자 지지). 인물성이론 주장(기국 강조)
- ◎ 의의: 노론의 분화 반영, 성리학을 통한 도덕의식 및 주체성 확립 기여
  - ◎ 낙론의 견해가 물성의 객관적 탐구 유발, 혹은 중화ㆍ이적 구별 관념에 근본적 변화를 부여했다는 등의 견해는 근래 반박당하고 있다.



2022 한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부문 1위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2021 조선일보 국가브랜드 대상 에듀테크 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1위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수상



2020 한국 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2016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 부문 1위



2019 한국 우수브랜드 평가대상 수상



보라 브랜드스탁 BSTI 브랜드 가치평가 1위

www.pmg.co.kr

**교재관련 문의** 02-6466-7202 학원관련 문의 동영상강의 문의 02-6466-7201

PMG 박문각



ISBN 979-11-6987-075-7 SET 979-11-6987-073-3